

【논문】

김재권에게 있어서 행위 설명과 설명적 실재론*

이 선 형**

【주제분류】 심리철학, 행위 철학

【주요어】 김재권, 행위 설명, 규범적 설명, 설명적 실재론, 행위자-인과

【요약문】 김재권은 최근의 일련의 논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다른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 설명은 일반 법칙에 의존하지도, 그 인과적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해서 설명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김재권의 행위 설명에 대한 이론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김재권의 해석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제안의 요점은 행위에 대한 김재권 식의 모형을 따르는 행위 설명도 인과-법칙적인 설명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설명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의존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법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인과 관계와는 다른 소위 “행위자-인과”(agent-causation)와 같은 것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I. 서론

김재권은 최근의 일련의 논문(Kim 1998, 2006, 2010a)에서 행위 설명

*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 강사

(action explanation)에 관한 기존의 견해에 반하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다른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 법칙에 의존하고,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명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행위자 자신의 행위 설명은 일반 법칙에 의존하지도, 그 인과적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의해서 설명이 이루어진다. 김재권에 따르면, 이러한 설명은 법칙에 의존하는 설명과 달리,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 설명이다.

행위 설명에 대한 김재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필자의 반응은 이중적이다.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사용하는 설명 방식은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과 상이하며,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김재권의 통찰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재권이 이런 설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필자는 김재권의 해석과 달리, 이러한 설명 역시 행위의 인과적 기원을 드러내는 설명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김재권의 행위 설명에 대한 이론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김재권의 해석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제안의 요점은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도 인과-법칙적인 설명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설명**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의존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법칙 및 규칙성(regularity)에 의해 뒷받침되는 인과 관계와는 다른 소위 **“행위자-인과”(agent-causation)**와 같은 것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행위 설명에 대한 규범적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법칙에 호소하는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할 것이다. 3절에서는 설명의 본성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개념적 구분을 도입한다. 이는 김재권 자신이 도입한 것인데, “설명적 실재론”(explanatory realism)과 “설명적 내재론”(explanatory internalism)의 구분이다. 4절에서는 김재권이 규범적 설명에 대해서 내재론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해서 규범적 설명은 실재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증할 것이다. 5절은 어떻게 이런 설명을 실재론적 설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II. 김재권의 행위 설명에 대한 규범적 모형

잘 알려졌듯이, 설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모형은 험펠(Carl G. Hempel)에 의해서 제안된 법칙-포섭적(nomic subsumption) 모형이다.¹⁾ 이 모형에 따르면, 설명은 일반 법칙(보편 법칙 또는 통계적 법칙)과 초기 조건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이 진술들은 설명되어야 할 바를 연역적으로 함축함으로써 그것을 설명한다.

여기서 설명에 포함된 일반 법칙이 하는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왔다. 험펠 자신은 그 역할은 근본적으로 인식적인(epistemic)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칙은 설명되어야 할 바(피설명항)의 “법칙적 기대가능성”(nomic expectability)을 높이고, 따라서 법칙-포섭적 설명은 피설명항이 충분히 기대할만한 것임을 보임으로써 피설명항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후의 많은 철학자들은 법칙-포섭적 모형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법칙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대가능성보다는, 일반 법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인과 관계**라고 주장한다.²⁾ 즉, 법칙-포섭적 설명은 피설명항의 원인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설명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설명에 대한 이런 모형을 **인과-법칙적 설명 모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인과-법칙적 설명 모형은 모든 현상의 설명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모

1) 험펠은 많은 곳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가령, Hempel (1966)을 볼 것. 특별히 행위 설명에 대해서 법칙-포섭적 모형을 적용한 것은 Hempel (1963)에서이다.

2) 가령, Lewis (1986) 및 Salmon (1984).

형으로 의도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야기되는지에 대한 법칙적 일반화라 불릴만한 것이 있는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적 일반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른바 “상식 심리학”(folk psychology)이라 불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원리들의 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험펠 자신은 인간의 행위도 일반적인 설명의 모형을 그대로 따르고, 따라야 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행위에 대한 설명도 다음과 같은 도식(scheme)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³⁾

- (A) 합리적 행위자인 S는 시간 t에 C라는 종류의 조건에 있었다.
 합리적 행위자는 조건 C에서 A라는 행위를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S는 시간 t에 A를 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술은 “초기 조건”을 진술한다. 두 번째 진술은 법칙적 일반화에 해당한다. 물론 행위를 지배하는 일반화는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 일반화라기보다는 예외를 허용하는 통계적 일반화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 (B) 합리적 행위자인 철수는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비를 맞지 않기를 원한다.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비를 맞지 않기를 원하는 합리적 행위자는 외출 시 우산을 가지고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철수는 외출할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인과-법칙적 모형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설명 모형이고, 위의 두 번째 법칙적 진술이 참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B)는 철수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세기 후반 이래로,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행위가 설명된다고 보는 것이 “표준적인 견해”라 불릴 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다.

하지만 김재권은 행위 설명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옳지 않다고 주장한

3) Hempel (1963).

다. 특히, 그는 인과-법칙적 모형은 행위자가 **그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왜곡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단락이 그 비판의 요지를 잘 드러낸다.

“[인과-법칙적 모형에 따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나와 유사한 행위자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언뜻 보기에, 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천가능성이 떨어지고(impractical) 비현실적인(unrealistic)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는 행위자의 자기-이해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 종류의 법칙적 정보를 갖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전적으로 무관해(irrelevant) 보인다.” (Kim 2010a, 131)

헬펠 식의 인과-법칙적 설명 모형을 당연히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에게 김재권의 주장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김재권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인과-법칙적 설명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어야 한다는 인과적, 법칙적 불가피성을 보임으로써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이해할 때 그런 방식을 따를까? 가령, 내가 나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가지고 외출하는 성향이 있어. 나도 이런 일반화에서 예외일 수 없고,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야.”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마치 내 자신이 행위의 주체였음을 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급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 같다. 물론 가끔은, 특히 나의 먼 과거의 행위를 설명할 때, 이런 종류의 인과-법칙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에게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어떤 것을 하도록 결정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게끔) 이끈 실천적 숙고(practical deliberation)를 알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는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방식이다. (Kim 2010a, 139)

여기서 김재권은 실천적 숙고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행위의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숙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김재권이 “실천적 숙고”로 의미하는 것은 “~을 해야 한다 (ought to)”는 형식의 문장으로 종결되는 추론이다. 이런 추론에 대해서 김재권은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한다.

- (C) 나는 상황 C에 처해 있다.
 상황 C에서 할 만한 적절한 행동은 X이다.
 따라서 나는 X를 **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상황 C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 (justifying reason)에 대한 진술로 의도된 것이다. 가령, 내가 지금 같은 속도로 강의실로 가면 강의에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내가 강의실로 뛰어가야 할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드는 것만으로는 내가 강의실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강의실로 뛰어가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두 번째 진술은 바로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도식은 실천적 추론의 일반적인 형식이라 할만하다. 김재권은 이런 실천적 추론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나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도식에서 결론을 “~를 해야 한다” 대신에 “~를 했다”라고 바꾸고 시제를 적절히 바꾸면, 다음을 얻게 된다.

- (D) 나는 상황 C에 처해 있었다.
 상황 C에서 할 만한 적절한 행동은 X였다.
 따라서 나는 X를 **했다**.

김재권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도식을 따른다. 이런 설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둘째 줄에 나타나는 규범적 진술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런 설명을 **규범적 설명**이라 부르도록 하겠다.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현관에 서서 우산을 가져가야할지 잠시 망설였다. 결국 다음과 같은 실천적 추론을 통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E)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이다.

따라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만약에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고, 나는 퇴근길에 “내가 왜 우산을 가지고 나왔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하자. 이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애초의 추론 과정을 되밟아 재구성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내가 왜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 오후에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였다.

따라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행위에 대한 이런 식의 설명은 인과-법칙적 설명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첫 번째로, 행위에 대한 인과-법칙적 설명에서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진술은 행위자의 **마음 상태를 보고**하는 진술이었다. 하지만, 규범적 설명에서는 마음 상태를 보고하는 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는 진술이 나타난다 (위의 (F)의 첫 번째 진술).⁵⁾ 물론 이런 설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설명자(즉, 이 경우 행위자 자신)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4) 김재권 자신이 인정하듯이 그의 행위 설명 모형은 윌리엄 드레이(Dray 1957)의 모형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드레이의 모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5) 일반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justifying reason)는 믿음과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바, 즉 명제나 사실이라는 것은 도덕 심리학자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가령, Scanlon(1998).

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명백히 다른 것에 대한 진술이다. 두 번째로, 인과-법칙적 설명에서 초기 조건과 피설명항을 매개하는 것은 법칙적 일반화였다. 규범적 설명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 즉 정당화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과 피설명항을 매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그 이유가 행위를 적절한 것으로 만든다는 취지의 **규범적 판단**이다 (위의 (F)의 두 번째 진술).

여기서 한 가지 가능한 반론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김재권의 규범적 설명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규범적 설명이 인과-법칙적 설명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⁶⁾ 가령, 다음과 같은 재해석을 생각해 보자.

(G) 나는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믿었다.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이것이 우산을 가지고 가야할 적절한 이유라고 믿는 합리적 행위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여기서 진한 글씨로 표시한 것은 규범적 설명 (F)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앞에서 규범적 설명의 첫 번째 진술은 마음 상태를 보고하는 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는 진술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를 쉽게 마음 상태에 대한 진술로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진술) 재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적어도 많은 경우에 발화자의 관점에서는 “나는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와 “비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은 인지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기 마련이라는 법칙적 진술을 추가하면, 이는 정확히 험펠 식의 인과-법칙적 설명이 되어버린다. 반대자들은 규범적 설명이 사실은 이런 식의 인과-법칙적 설명을 축약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해석은 규범적 설명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결과를

6) 여기서 제시한 반론은 험펠(Hempel, 1963)이 트레이(각주 4를 볼 것)에 대해서 제기한 비판과 유사하다.

낳는다. 김재권이 행위에 대한 인과-법칙적 설명을 반대한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종류의 법칙적 정보를 갖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전적으로 무관해 보인다**” (Kim 2010a, 131, 강조는 필자). 이 비판은 (G)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G)는 원래의 규범적 설명 (F)와 겹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이 재해석은 (F)에 담긴 설명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가령, 나의 규범적 설명 (F)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아 그럼 결국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너의 행위를 야기했다는 것 아니야?”라고 묻는다면, 아마 나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런 믿음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행동이 야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야”라고.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행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에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가령, 위의 (F)에서 “나”를 “철수”로 대체해 보자.

(H) 오후에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였다.

따라서 철수는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이는 철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진술은 우산을 가지고 가야 할 나의(즉 설명자의) 이유이지 철수가 가진 이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 둘째 진술 역시, 그런 상황에서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나의(즉, 설명자의) 판단을 진술하는 것이지 철수의 판단을 진술하고 있지 않다. 철수는 비가 오는 것이 우산 보다는 우비를 챙겨야 할 이유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은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 만하다.⁷⁾ 그렇다면 내가 아닌 타인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해서는 인과-법칙적 설명이

7) 이 점은 Kim (2010a)에서 강조된다.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되겠지만, 이는 김재권이 택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일인칭적 관점을 모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⁸⁾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본 논문의 목적상 규범적 설명이 적어도 행위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적절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것은 규범적 설명의 **본성** 및 **토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런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이 이런 설명을 적절한 설명으로 만드는가? 인과-법칙적 설명의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꽤 그럴듯한 대답이 있었다. 설명에 포함된 법칙은 그것의 인식적 기대가능성을 높이고, 설명되어야 할 현상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규범적 설명의 경우에도 이에 비견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김재권 자신이 제시한 설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도입할 것이다.

Ⅲ. 설명적 내재론과 설명적 실재론

김재권은 험펠 이래의 설명(또는 과학적 설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명제적 지식을 넘어서는 인식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험펠 이래의 설명에 대한 철학적 문헌은 주로 우리의 설명의 관행을 “합리적으로 재구성”(rational reconstruction)하여 그 “모형”(model)을 구축하는 데에 치중했지, 어떻게 설명이 설명되는 현상의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왜 설명이 인식적 활동 일반에서 핵심적으

8) Kim 1998, V절과 Kim 2010a IV절을 볼 것.

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것이다.⁹⁾

김재권에 따르면,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 해명해야 할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C가 E를 설명하는 것은, C와 E 사이에 어떤 관계 R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은 이 설명적 관계 R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이 관계 R이 어떤 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김재권은 R이 어떤 종류의 관계이냐에 따라 설명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설명적 내재론**”(explanatory internalism) 또는 “**설명적 비실재론**”(explanatory irrealism)이라 부를 수 있는 입장이다.¹⁰⁾ 이에 따르면, R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들의 기술 사이의 **논리적 또는 인식적 관계**이다. 가령, 앞서 보았듯이 험펠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법칙적 기대가능성**”이라는 인식적 관계에 의해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입장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가령, 마이클 프리드만(Friedman 1974)나 필립 키처(Kitcher 1981) 같은 철학자들은 설명은 언뜻 보기에서 독립적인 지식 조각들을 논리적, 인식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설명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계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반면, 김재권이 “**설명적 실재론**”(explanatory realism)이라 부르는 입장에 따르면, R은 설명항과 피설명항이 진술하는 사건 또는 사실 사이에 성립하는 모종의 **객관적 의존 관계**이다. 이런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인과 관계이다. 앞서 보았듯이 많은 철학자들이 험펠의 법칙-포섭적 설명 모형에서의 법칙의 역할이 그것에 의해 뒷받침 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의 배후에 바로

9) Kim (1994), 167-71.

10) Kim (1988), Kim (1989), Kim (1994).

설명적 실재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재권은 이 객관적 관계를 반드시 이런 종류의 인과 관계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령, 김재권은 부분-전체의 관계도 형이상학적 실재론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명적 실재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명은 **형이상학적인 의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을 달성한다.¹¹⁾

설명적 내재론과 설명적 실재론을 가르는 유용한 기준 하나는 설명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참, 거짓을 적용하는 것이 유의미하나의 여부이다.¹²⁾ 설명은 진술들의 집합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설명적 실재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명이 어떤 객관적 관계 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상을 설명한다면, 그 설명은 이 관계에 대한 참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설명적 관계 R이 단순히 내적인 관계일 경우 설명에 대해서 (적어도 문자적 의미에서) 참,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게 된다.

필자가 알기로 김재권은 설명적 실재론을 선호할만한 결정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설명적 실재론이 옳다고 볼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중 두 가지 이유만을 제시하겠다.

첫째, 앞에서 설명에 대한 이론은 왜 설명적 관계 R이 설명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권은 이에 대해서 설명적 실재론이 더 나은 대답을 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¹³⁾ 설명적 내재론자들이 주장하듯이 흩어져 있는 지식 조각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모종의 인식적 이득을 줌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러한 통합이 어떤 의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설명적 실재론에서는 어떤가? 설명되어야 할 현상의 형이상학적 기원 또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자동

11) 이런 식으로 설명적 관계의 토대를 일반화하는 것은 Kim (1994)에서이다. 특히, p. 183을 볼 것.

12) 가령, Kim (1989), p. 149.

13) Kim 1994, p. 182.

적으로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더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럴 듯해 보인다.

두 번째는 설명적 실재론이 소위 “설명적 배제”(explanatory exclusion)라 불리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설명적 배제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구별되고 완전한 설명이 있을 수 없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는 단단히 화가 나있다. 왜 그런가? 다음의 두 가지 설명을 생각해 보자. “영희가 그를 바람 맞추었기 때문이다.” “귀가 길에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가 받아들일만한 설명일 수 있을까? 물론 두 가지 설명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가령, 철수가 영희에게 바람 맞아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철수가 화가 나게 된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영희에게 바람 맞은 것과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 각각은 철수가 그토록 화나게 된 것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두 설명이 **독립적이고 완전한 설명**이라고 가정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 가지 설명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왜 설명적 배제 현상이 일어날까? 김재권은 설명적 실재론이 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독립적이고 완전한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인과적 배제”의 입론은 존중되어야 할 형이상학적 원리이고, 이는 설명적 실재론과 더불어 왜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독립적이고 완전한 설명이 있을 수 없는지를 잘 설명한다.

IV. 내재론적 설명으로서의 규범적 설명?

다시 행위 설명의 문제로 돌아가서,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은 설명적 실재론과 내재론의 구분에서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

14) “설명적 실재론은 설명적 배제에 대해 지지를 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Kim 1988, 166). 또한 Kim 1989, p. 97도 볼 것.

도록 하자. 얼핏 보기에 규범적 설명은 설명적 실재론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모형임이 분명해 보인다. 설명항과 피설명항 사이에 법칙에 포섭되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규범적 설명과 같은 것이 진정한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다. 김재권은 토마스 네이글(Nagel 1986)이 제기한 다음의 비판을 고려한다.

“두 가능한 행위 X와 X*에서 고민하고 있는 행위자를 고려해 보자. 그의 관점에서 두 이유 R과 R*가 있는데, R은 X를 할 이유이고, R*는 X*를 할 이유이다. 고민 끝에 행위자는 X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왜 X를 선택했는지 묻는다면, 그는 R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네이글은 이것은 설명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 행위자가 만일 X 대신 X*를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그는 그의 선택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Kim 2010a, 140)

이에 대한 김재권의 답변은 이렇다.

“네이글 자신은 이런 설명이 선택과 행위를 ‘주관적으로 이해 가능한’(subjectively intelligible)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관적 이해 가능성이 행위자 자신에게의 이해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전부이다. 네이글은 더 나아가 이런 설명이 왜 다른 행위가 아닌 이 행위가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명한다. 하지만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객관적인, 아마도 험멜적인 설명을 산출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에 불과하다.” (Kim 2010a, 140-1)

다시 말해, 네이글 식의 비판은 인과-법칙적 설명만이 유일한 종류의 설명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권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주장에 모순되는 바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런 비판은 선결 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대답은 설득력이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은 될 수 없다. 김재권은 규범적 설명이 “주관적 이해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관적 이해가능성”이란 과연 무엇

이며, 어떻게 규범적 설명이 이를 가능케 하는가? 다시 말해, 규범적 설명의 경우 설명적 관계 R은 과연 무엇인가? 김재권의 최근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지만, 그가 1980년대에 썼던 같은 주제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했듯이, ‘설명’이란 말은 특히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어떤 경우 설명되어야 할 것의 인과적 기원(causal provenance), 즉 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것에 관련된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정당화’(justification)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가령, 상사가 부하에게 ‘네가 왜 A를 했는지 설명해’라고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했을 때, 이는 A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요구라기보다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이다.” (1984, 315)

규범적 설명의 경우 설명적 관계 R은 다름 아닌 이유와 행위 사이의 정당화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이것이 김재권이 의도한 바가 맞는다면, 그는 규범적 설명을 내재론적 설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행위에 대한 이유(가령, 비가 온다는 것)와 행위(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감) 사이에는 직접적인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¹⁵⁾

앞서 말했듯이 김재권은 설명적 실재론이 설명 일반에 대해서 선호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규범적 설명에 대한 내재론적 입장은 그의 철학에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의 철학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필자는 그의 입장 내의 내적인 갈등을 떠나서, 규범적 설명을 내재론적 설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볼 독립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밑에서 그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규범적 설명을 단순히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설명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김재권 자신이 예시로 든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사가 “네가 왜 A를 했는지 설명해!”라고 요구할 때, 이에 답하는 부하의 의도가 단순히 정당화일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반드시 그

15) 행위에 대한 이유를 명제(proposition)라고 보는 입장이 옳다면, 이유가 행위와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를 갖지 않음은 더더욱 분명해 진다. 명제는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래야할까? 상사가 “네가 솔직히 말하면, 벌을 감해주겠다”고 말한다고 하자. 부하는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변명을 하기 보다는, 그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솔직히 털어 놓으려고 한다. 즉 부하는 자신의 행동의 기원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상사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제 부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의 설명을 해야 할까? 험멜 식의 인과-법칙적 설명을 제시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만일 인과-법칙적 설명을 한다면, 상사는 오히려 부하가 핑계를 대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더 가혹하게 처벌하려 할지 모른다.) 여전히 부하는 자신의 실제 숙고 과정을 조심스럽게 재구성하여 규범적 설명을 내어 놓을 것이다. 즉, 설명자가 진지하게 그 발생적 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할 때조차 규범적 설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설명자의 의도로 판단할 때, 규범적 설명은 그 행위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설명임이 분명해 보인다.

둘째, 앞서 보았듯이 실재론적 설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설명이 옳고(correct) 옳지 않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문자 그대로 참, 거짓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규범적 설명 역시 중요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가령, 부하가 그 행위를 할 당시 R이라는 이유로 인해 X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사의 설명 요구에 이와는 다른 R*이라는 이유로 X를 했다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한다면, 이는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¹⁶⁾

셋째, 앞 절에서 “설명적 배제”의 현상이 설명적 실재론을 받아들일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설명적 배제 현상은 규범적 설명에 관해서도 온전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 2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 내가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설명한다.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나갔던 거야.” 반면 어떤 사람이 이를 듣고 다음과 같은 식의 인과-법

16) 이는 소위 “데이빗슨의 도전”이라 불리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잘 알려졌듯이 도널드 데이빗슨(Davidson 1963)은 “행위에 대한 이유”(reason for)와 “행위를 한 이유”(reason for which)를 구분하기 위해서 행위를 설명하는 이유를 행위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필자가 할 제안은 “데이빗슨의 도전”에 대한 이와는 다른 종류의 대답으로도 볼 수 있다.

칙적 설명을 제시한다고 하자. “내가 보기에 너는 비 맞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네가 한 행위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야. 너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지.” 두 설명은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명백하고, 둘 중에 하나만이 맞는 설명이어야 할 것 같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설명적 배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설명이 실재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국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실재론적 설명으로 보아야 할 좋은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제 김재권 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 모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 같다.

(1) 규범적 설명을 실재론적 설명, 특히 마음 상태와 행동 사이의 법칙에 포섭될 수 있는 인과 관계에 기반을 둔 설명으로 보는 것은 그 설명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김재권이 지적하듯이, 법칙적-인과적 진술은 자기 자신의 행동 이해에 있어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고 무관하기까지 하다.

(2) 규범적 설명을 실재론적 설명으로 보지 않는 것 또한 규범적 설명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다. 어떤 행위를 그 행위 주체가 규범적 설명으로 설명할 때, 그가 의도하는 것은 그 행위의 기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에 대해서 참, 거짓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규범적 설명의 토대로서의 행위자-인과

필자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설명적 실재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설명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종의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에 현상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이런 의존 관계는 법칙적 일반화에 포섭될 수 있는 종류의 인과 관계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유일하게 설명적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라고 볼 필요는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재권은 부분-전체 관계나 아니면 어떤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런 인과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의존 관계가 규범적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자. 위에서 보았듯이 어떤 설명을 실재론적인 설명으로 볼 것이냐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것에 대해 문자적 의미에서의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재론적 설명은 “진리 조건”(truth condition)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주어졌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그 설명을 올바른 설명으로 분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내가 R이라는 이유로 X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고, R*이라는 이유로 X를 했다는 것이 틀린 설명이라고 할 때, 왜 앞의 것을 맞는 것으로 간주할까? 이는 바로 X라는 행위를 할 당시, R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선택자이고 행위자인 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종류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설정된 인과 관계의 개념이 있다. **행위자-인과(agent-causation)**의 개념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과 관계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로 생각된다. 이런 **사건 인과(event causation)**는 일반적으로 법칙적인 일반화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이와는 상이한 대상(특히 사람)과 사건 사이에도 성립하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행위자-인과의 개념이다.

이제 행위자 인과의 개념이 주어지면, 딜레마의 첫 번째 뿔을 공격할 길이 열리게 된다. 김재권은 규범적 설명이 법칙에 포섭되는 종류의 인과 관계(즉, 사건 인과 관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인과 관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내재론적 설명이라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¹⁷⁾

17) 행위자-인과 개념을 사용하는 어떤 철학자들은 명시적으로 규범적 설명과 같은 것의

행위의 규범적 설명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도 인과-법칙적 설명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형이상학적 기원을 추적하는 실재론적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규범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관계는 행위자 인과의 관계이다. 그 인과 관계가 실제로 성립하면, 그 규범적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설명이다.¹⁸⁾

이 지점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될 것 같다. 행위자 인과의 개념이 전통적으로 영향력 있었고, 현대 분석 철학에서도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이를 상당히 신비스럽고 모호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연주의적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은 이런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과학적 세계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비판은 행위자 인과에 대해 몇몇 철학자들이 가졌던 **특정한 견해**에 대한 비판을 될지 모르지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적절한 비판은 되지 못한다. 필자가 말하는 특정한 견해란, 행위자 인과를 사건 인과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한 종류의 원초적인 형이상학적 관계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이런 견해는 대표적으로 로더릭 치죌(Roderick Chisholm 1966)이나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66)에 의해 옹호되었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를 거부한다. 하지만 최근에 저명한 행위 철학자 데이비드 벨만(David Velleman)이 지적했듯이, 행위자-인과의 개념 자체가 이런 비환원주의적 견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맥락에서 행위자-인과를 이해하려 하였다. 가령, Clarke 1993.

18) 필자가 아는 한, 김재권 자신은 행위자-인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암묵적으로 행위자-인과와 같은 것에 호소하고 있다고 볼만한 인용문들을 찾을 수 있다. 가령, 그는 진정한 의미의 행위성(agency)을 살리기 위해서 생성적 인과(productive causation)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자는** 그의 믿음, 욕구, 감정, 등등에 따라서 ... 자신의 팔다리와 다른 몸 부분들이 적절히 움직이도록 **야기할 능력을 갖는다** (an agent is someone who ... has the capacity of cause her limbs ...)” (Kim 2007, 257, 필자의 강조).

야 할 이유가 없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행위의 경우, 행위자 자신이 그 기원이며 원천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¹⁹⁾ 그런 점에서 행위자-인과의 같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상식적인 견해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벨만에 따르면, 자연주의적 성향을 가진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은 행위자-인과의 같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건 인과의 관계에 **수반하고,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²⁰⁾

다음과 같은 유비가 적절할 것 같다. 심리 철학에서 “감각질”(qualia)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 감각질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감각질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²¹⁾ 이런 철학자들은 감각질의 개념을 심지어 환원불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감각질은 그 정의상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각질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주의자들로서 하여금, 이원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명백히 존재하는 현상을 부정할 것이냐의 거짓된 딜레마로 몰아넣게 된다. 마찬가지로, 행위자-인과의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다. 이 개념을 환원불가능성을 내포하고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형이상학적 이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명백히 존재하는 것 같은 현상을 부정할 것이냐의 거짓된 딜레마로 몰아넣게 된다.

물론 어떤 개념이 정당하고 유용한 개념임을 보인다고 해서, 그 개념이 포착하고자 하는 바가 세계에 실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필자의 의도는 실제로 행위자-인과의 같은 것이 세계에 실재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행위자-인과

19) 최근에 몇몇 철학자들이 행위자-인과의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Bayne (2008), Horgan (2007).

20) Velleman 1992, 130-1. 또한 행위자-인과의 대표적인 지지자인 치썸(Chisholm, 1978) 역시 행위자-인과의 대한 진정한 철학적 문제는 그것이 사건 인과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21) 김재권도 감각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다 (Kim 2005).

와 같은 것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종류의 설명이라고 볼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행위자 인과와 같은 것이 세계에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의해 뒷받침되는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항상 틀린(incorrect) 설명임이 밝혀지는 것이고, 과학적인 인과-법칙적 설명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 인과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적 설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이해를 줄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 허구에 기반을 둔 거짓된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귀결을 피해야 할 좋은 이유가 있다고 믿지만, 이는 본 논문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바는 아니다. 필자의 주장은 규범적 설명의 적절성은 행위자-인과 같은 것이 실재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위자-인과의 개념이 사건 인과로의 불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이런 관계가 실재한다는 것이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크게 형이상학적으로 부당스러운 주장으로 생각될 필요가 없다.²²⁾ 이것이 실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지는 더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²³⁾ 중요한 것은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형이상학적 탐구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VI. 결 론

김재권은 설명의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물음들을 피해갈

22) 만일 행위자-인과가 사건 인과로 환원된다면,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은 인과-법칙적 설명과 독립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는 설명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범적 설명이 인과-법칙적 설명과 동일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과 물리학적 설명이 있을 때, 전자가 후자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설명은 구분되는 설명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점을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필자의 박사 논문(Rhee, 2014)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23) 앞에서 언급한 벨만의 논문(Velleman 1992)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도 담고 있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증하였다.²⁴⁾ 어떤 점에서 필자가 본 논문에서 논증하고자 한 바는, 행위 설명에 대해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설명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추적하는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행위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과 상이하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인과 관계와는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상이한 형이상학적 의존 관계에 기반을 두는 설명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필자는 행위자-인과와 같은 어떤 것이 그런 의존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행위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행위자-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행위자 인과라는 것이 과연 실재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사건 인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가 옳다면,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설명과 자기-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

투 고 일: 2016. 11. 01
 심사완료일: 2016. 11. 17
 게재확정일: 2016. 11. 17

이선형
 서울대 강사

24) 특히, Kim (1999)를 볼 것.

참고문헌

- 김재권 (2006). 「행위에 대한 이해」, 『철학사상』 제23집, 3-29.
- Bayne, Tim (2008). “The Phenomenology of Agency”, *Philosophy Compass* 3:182-202.
- Chisholm, Roderick. M. (1964). “Human Freedom and the Self”, reprinted in Watson (2003).
- _____. (1978). “Comments and Replies”, *Philosophia* 7: 597-636.
- Clarke, Randolph (1993), “Toward a Credible Agent-Causal Account of Free Will”, *Noûs* 27: 191–203.
- Davidson, Donald (1963). “Actions, Reasons, and Causes”, *The Journal of Philosophy* 60:685-700.
- Dray, William (1957). *Law and Explanation in His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Michael (1974). “Explanation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The Journal of Philosophy* 71: 5-19.
- Hempel, Carl G. (1963). “Explanation in Science and in History”, Robert G. Colodny ed., *Frontiers of Science and Philosophy*,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Reprinted in J. Dancy, et al. eds., *Philosophy of Action: An Anthology*, Malden, MA: Wiley Blackwell.
- _____. (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rgan, Terence. E. and J. L. Tienson, and G. Graham (2003). “The Phenomenology of First-Person Agency”, Walter, S. and Heckmann, H. D., eds., *Physicalism and Mental Causation: The Metaphysics of Mind and Action*. Exeter, UK: Imprint Academic.
- Kim, Jaegwon (1984). “Self-Understanding and Rationalizing Explanations”,

- Philosophia Naturalis* 21:309–320.
- _____ (1988). “Explanatory Realism, Causal Realism, and Explanatory Exclus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2:225–239. Reprinted in Kim (2010b).
- _____ (1989). “Mechanism, Purpose, and Explanatory Exclus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3:77–108.
- _____ (1993). *Supervenience and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Explanatory Knowledge and Metaphysical Dependence”, *Philosophical Issues* 5:51–69. Reprinted in Kim (2010b).
- _____ (1999). “Hempel, Explanation, Metaphysics”, *Philosophical Studies* 94:1–20. Reprinted in Kim (2010b).
- _____ (2005).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Causation and Mental Causation”, J. Heil and A. Mele, eds., *Contemporary Debates in Philosophy of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Kim (2010b).
- _____ (2010a). “Taking the Agent’s Point of View Seriously in Action Explanation”, In Kim (2010b).
- _____ (2010b). *Essays in the Metaphysics of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tcher, Philip (1981). “Explanatory Unification”, *Philosophy of Science* 48: 507-531.
- Lewis, David K. (1986). “Causal Explanation”, *Philosophical Papers*,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gel, Thomas. (1986). *The View from Nowhe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hee, Sun Hyung (2014). *Agent Causation and Reduction*, Ph.D Dissertation,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Brown University.

- Salmon, Wesley C. (1984). *Scientific Explan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anlon, Thomas (1998).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Richard (1966). *Action and Purpos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Velleman, J. David (1992). “What Happens When Someone Acts?”, *Mind* 101:461–481. Reprinted in Velleman (2000).
- _____ (2000).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Rea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Jaegwon Kim on Action Explanation
and Explanatory Realism

Rhee, Sun-Hyung

In his recent papers, Jaegwon Kim argues that the way we explain and understand our own action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way we explain and understand other phenomena. Unlike explanations of other phenomena, our explanations of our own actions neither rely on general laws nor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ausal provenance of actions. Rather, they explain actions only by justifying them. In this paper, I review Kim's model of action explanations, and I claim that Kim's construal of such explanations has an important problem. And I argue that to re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construe the Kim-style explanations as realistic explanations grounded on a certain metaphysical dependence relation. Specifically, I claim that such explanations need to be seen as grounded on something like "agent-causation."

Subject Class: Philosophy of Mind, Philosophy of Action

Keywords: Jaegwon Kim, Action Explanation, Normative Explanation, Explanatory Realism, Agent-Causation